

사회

학원 3곳 중 1곳 불법·편법 운영



송편 만들기 체험 추석 앞둔 9일 광주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한복을 귀엽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송편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교과부 2213곳 적발

광주와 전남지역 학원 3곳 중 1곳은 불법이나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민주당) 의원이 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학원 지도단속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광주·전남지역 학원 5992곳을 점검한 결과, 2213곳(36.9%)의 학원이 불법·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운영과 수강료 초과징수가 20%로 가장 많은 학원이 불법·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유형별로는 입시·보습학원이 1만5600곳으로 51.2%를 차지했고, 피아노·미술·무용 등 예능학원이 5350곳(17.6%), 영어·중국어 등 국제화 학원이 3760곳(12.4%) 등으로 뒤를 이었다.

23%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8만1711개 학원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37.3%에 달하는 3만438개 학원이 불법·편법 운영으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된 학원이 3860곳(10.5%)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운영이 1829곳(5%), 수강료 표시 등 계시사항 의무위반 1301곳(3.6%), 무자격 강사 채용이 301곳(0.8%) 등이었다.

학원 유형별로는 입시·보습학원이 1만5600곳으로 51.2%를 차지했고, 피아노·미술·무용 등 예능학원이 5350곳(17.6%), 영어·중국어 등 국제화 학원이 3760곳(12.4%)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대 9일’ 여행업계 추석 특수

해외여행 ‘붐물’... 장거리 노선 상품 동나

지역 유명 휴양지 숙박 예약 70% 넘어서

경기부진에 신종플루 여파로 지난해 최악의 침체를 겪었던 여행업계가 살아나는 소비심리와 함께 최대 9일을 쉴 수 있는 연휴를 앞두고 ‘추석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길어진 추석 연휴 탓에 지역 내 유명 휴양지 숙박시설들의 예약률은 이미 70%를 넘어선데다 여행사들의 해외 상품도 대부분 마감됐다.

신안군 증도면 엘로라도리조트의 경우 연휴기간(21~25일) 동안 185개 객실의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리조트측은 연휴가 예년보다 2배나 길어 투숙률도 거의 100%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급호화리조트의 객실 예약현황도 연휴 첫날인 21일 95%, 22일 80%, 23일 98%로 예년보다 훨씬 높

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여수 디오선리조트와 전북 무주리조트도 9일 현재 추석 연휴기간 객실 예약률이 평균 70%를 넘었다. 연휴 때까지 일주일 정도 시일이 남아 있어 훨씬 많은 고객들이 리조트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주 내에 예약이 만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리조트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외로 떠나는 장거리여행 상품도 이미 동났다. 이번 추석의 공식 휴일은 21~23일이지만 연휴 앞뒤로 하루씩 휴가를 내면 길게는 9일까지 쉴 수 있어 유럽 등 장거리 해외여행을 나서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해외여행 전문 업체인 세진여행사 광주점에 따르면 유럽·미국·대양주 등 장거리 노선 여행상품은 이미 마

감됐으며, 일본·중국·동남아 등 단거리 여행 상품도 90%로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쇼핑플랫폼 G마켓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18~26일)에 해외로 떠나는 여행 상품 예약 건수가 작년 추석 연휴(10월 2~4일) 때보다 32% 늘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상품의 예약 건수는 작년 대비 12배 이상 급증했다.

하나투어의 올 추석시즌 해외여행 상품도 해외여행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7년 연휴(9월 22~26일) 때보다 73% 증가한 4만5000여명이 예약한 상태다.

세진여행사 광주점 관계자는 “작년 신종플루로 인해서 여행을 못했던 수요가 이번에 많이 몰리는데다 올해는 연휴가 길어서 여행객들이 장거리 노선에 몰렸다”며 “올 추석 해외 여행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때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MRI 검사비·희귀난치병 치료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고가의 비용이 드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희귀난치 치료제의 건강보험 인정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 영증성 척추병증 및 척추골절 등 척추질환과 과수염 및 인대 손상 등 관절질환 진단시 MRI 검사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

기로 했다.

그간 MRI 검사는 암, 뇌혈관질환 및 척추손상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척추 및 관절질환 환자는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로써 연간 43만8000명에 달하는 척추 및 관절질환 환자가 건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간 8만5400명에 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 경감을 위해 10월부터 희귀난치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남뉴스

오늘 날씨, 신선한 가을밤, 전국 날씨 지도,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

하나SK카드 Touch 1 카드 출시,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3자녀 이상 둔 가정, 공용주차장 50% 할인

국제보청기,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광주MBC 문화탐방, 삼국지 중원의 땅 중국의 古都 하남성으로...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한 찬란한 문화유산의 총 집합체, 무안 소림사 직항 전세기